

## 주님의 봉헌 축일(공현 후 4주일) 감사성찬례

집전 / 설교: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: 정스테반 지휘 / 선창: 박어거스틴 반주: 정모니카

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[www.youtube.com/성공회 산본교회](http://www.youtube.com/성공회 산본교회)

### 개회예식

†입당성가 ..... 178장 ..... 다 함 께  
 †양초축복 ..... 다 함 께  
 †정심(淨心)기도 ..... 8쪽 ..... 집 전 자  
 †죄의고백 ..... 9쪽 ..... 다 함 께  
 †영광송 ..... 12쪽(C곡) ..... 다 함 께

### 말씀의 전례

†본 기 도 ..... 집 전 자  
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, 오늘 사랑하시는 아들 예  
 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전에 봉헌되셨나이다. 겸  
 손히 비오니, 우리도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 
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되게 하소서.

1독서 ..... 말라 3:1-5 ..... 말 은 이  
 성 시 ..... 24편 ..... 다 함 께



1 이 세상과,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주님의것,  
 ○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|주님의-이것

2 주께서 바다 밑에 기둥을 박으시고

○ 이 땅을 그 물 위에 든든히 |세우셨-이다.

3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산에 |오리랴?

○ 어떤 사람이 그 성소에 |들어서-리라?

4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, 허망한 데 뜻을  
 두지 |않-이고

○ 거짓 맹세 아니 하는 |사람이-이다.

5 이런 사람은 주님께 복을 |받-이고

○ 하느님께 구원받을 |사람이-이다.

6 이런 사람이 하느님을 찾는 |사람이며

○ 야곱의 하느님 앞에 나아갈 |사람이-이다.

●영광이 |성부와 ○ 성자와 |성령 께

처음과 같이 |지금도 ○ 그리고 영|원히, |아- |멘

2독서 ..... 히브 2:11-18 ..... 말 은 이

†복음환호송 ..... 말 은 이

†복음서 ..... 루가 2:22-40 ..... 말 은 이

설교 ..... 바우로 신부  
 니케아신경 ..... 16쪽 ..... 다 함 께  
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..... 말 은 이

### 성찬의 전례

†평화의 인사 ..... 19쪽 ..... 다 함 께  
 †봉헌성가 ..... 179장 ..... 다 함 께  
 성찬기도 ..... 20쪽 ..... 1 양 식  
 거룩하시다 ..... 22쪽(C곡) ..... 다 함 께  
 주의기도 ..... 25쪽 ..... 다 함 께  
 성체나눔 ..... 26쪽 ..... 다 함 께  
 하느님의 어린양 ... 27쪽(C곡) ..... 다 함 께  
 성체성가 ..... 624장 ..... 성 가 대  
 †영성체후기도 ..... 다 함 께  
 전능하신 하느님, 주님은 성체성사으로써 우리에게  
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. 비오니, 우리로 하여금 주  
 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,  
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. 우리 주 예  
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. 아멘.

교회소식 ..... 신 자 회 장

### 파송예식

†축복기도 ..... 29쪽 ..... 집 전 자  
 †파송성가 ..... 483장 ..... 다 함 께  
 (†는 일어섬)

|              | 이번 주일(2월 2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음 주일(2월 9일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독서          | 류한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장은          |
| 2독서          | 최미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성산          |
| 대 도          | 조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류한신          |
| 다음주일<br>전례독서 | 이사 6:1-13   시편 138<br>1고린 15:1-11   루가 5:1-11 |              |
| 성 가          | 324   403   406   392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복 사          | 최하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혈조력 정요셉     |
| 다음주간<br>교회청소 | <5조> 정국진 이숙영 정연창 박순호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(1997-2025 / 교회설립 28주년)



# 성공회 산본교회

St. Clare's Anglican Church

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, 청진빌딩 7층 ☎ 031-397-0443

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

2025년 2월 2일 주님의 봉헌 축일(공현 후 4주일) · 다해 · 백색

제29-5호

“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.”



주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셨습니다. 이스라엘의 율법  
 에 따라 자녀를 얻은 부모가 첫 아이를 하느님께 봉  
 헌하는 관례에 따라 아기 예수님도 성전에 봉헌되신  
 것입니다.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. 하  
 느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만물을 창조하시  
 고, 살아가게 하십니다.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느님  
 의 다스림에서 먼 듯합니 다. 우리 신앙인들과 하느  
 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다보니 모든 것  
 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하기가 여간 어  
 려운게 아닙니다. 그렇기에 우리 신앙인의 삶은 오늘  
 복음에 나오는 ‘시므온과 안나’의 모습을 본받아야  
 합니다. 시므온은 ‘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  
 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이었고, 죽기 전에 하느  
 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꼭 보게 되리라는 희망  
 을 가진 사람’이었습니다. 안나 역시 결혼을 하고 7  
 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도록 ‘성전에서 단식

과 기도로 하느님을 섬겨온 사람’이었습니다. 이 두  
 사람은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희망으로 자신들  
 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람들이었습니  
 다.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시는 장면을  
 목격하면서 하느님의 현현(顯現)을 체험한 것입니다.  
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에 하느님께서 함  
 께 하시고,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드러내 보이  
 셧음을 깨달은 이들입니다.  
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드릴 봉헌은 우리의 삶이  
 하느님의 섭리(攝理)에 놓여있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 
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드릴 봉헌은 하느님  
 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속에서 하느님의 현  
 존을 발견하고, 우리가 그 현존의 증인으로 드러나  
 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. 이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 
 삶은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데에 온전히  
 쓰일 것입니다. 그것이 진정한 봉헌의 삶입니다.

교구장 김장환(엘리아) 주교 / 관할사제 최용준(바우로) 신부

신자회장 최용옥(어거스틴) / 사제회장 김운권(베네딕트) / 원로회장 한명숙(율리아나)

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 
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근상  
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